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17-160
<https://doi.org/10.29212/mh.2022..122.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김미성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송파나루의 군사적 입지 조건
3. 송파창(松坡倉)의 설치와 남한산성의 창고 운영
4. 송파장(松坡場)의 설치와 광주유수의 보호
5.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송파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후기 송파장(松坡場)의 상업적 발달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논증함으로써, 상업과 군사시설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송파장의 시작과 번영 과정에는 그 군사적 목적과 기능이 관통하고 있었다.

첫째, 송파나루는 수어청에 소속되며 군영의 별장(別將)이 관할하

는 한강변 4진(四津) 중 하나였다. 광주의 진사(鎭舍)가 위치한 곳이었으며, 수어청의 둔전과 군관·진군도 배치되었다. 이러한 송파나루는 일찍부터 ‘보장(保障)의 중지(重地)’로 여겨지며 중시되었다.

둘째, 송파창(松坡倉)은 남한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기능하였다. 송파창은 한강을 통해 실려 오는 전국의 군량미들과 목재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이었다. 높은 산성까지의 운송이 어려웠으므로 강변 송파창은 효율적인 창고였다. 송파창의 곡물들은 봄에 인근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분급되었고 가을에 환곡을 갚을 때에는 남한산성에 납부하게 하였다.

셋째, 송파장은 군사상 요충지에 충분한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 또 그 모민(募民)들과 진군(鎭軍)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8세기 초 수어사의 제안에 따라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산성 근처에 개설되었으나 송파나루쪽으로 옮겼으며, 송파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19세기 초 전국 15대 장시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한성의 시전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파장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도, 송파장의 국방상 기능이 인정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송파 지역 사례에서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장시가 개설·이전·성장·유지되었다. 이 사례는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군사적 물류의 영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송파나루, 송파창, 송파장, 수어청, 남한산성,
광주유수부, 모민(募民)

(원고투고일 : 2022. 1. 7,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조선후기 천여 개에 달했던 전국의 장시(場市)들은 주로 상업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¹⁾ 송파장(松坡場)도 19세기 초 『만기요람』에서 전국 15대 장시에 속하는 대장시로 꼽혔고, 또 한성부에 가장 인접한 대장시였으므로, 기존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었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서울 상업을 논할 때에는 송파장과 송파상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²⁾ 당시 행정구역상에서는 송파가 한성부에 속하지 않았고 경기도 광주에 속했으나, 한강을 매개로 서울의 상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서울 상업에서 송파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송파는 조선후기 서울 주변에 형성되었던 ‘위성도시’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³⁾ 한편, 송파장은 송파나루에 위치하였으므로 외방(外方) 포구(浦口)를 매개로 하는 유통로 연구에서도, 전국 단위의 원거리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포구로서 설명되었다.⁴⁾ 하지만 최근 조선후기 상업에 대한 연구자가 뜸해진 상황이라 송파장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적은 편이다.

송파장이 전국적인 대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송파나루가 수로·육로 교통의 요지에 입지했던 점, 또 당시 최대의 소

1)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997

2) 최완기, 「朝鮮後期 松坡商의 都賈活動」, 『도시행정연구』 8, 1993 ; 최완기, 「VIII. 松坡場의 商人들」,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학교양총서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82~87쪽 ; 변광석, 『朝鮮後期 市塵商人 研究』, 혜안, 2001, 132쪽, 180쪽, 219쪽

3) 손정목, 「李朝後期 서울周邊에 形成된 衛星都市研究(上)」, 『도시문제』 1975년 11월 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

4)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한국사론』 13, 1985, 10쪽

비시장이었던 한성과 인접해 있었다는 점, 그러나 시전상인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점 등 교통·상업상의 이점들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도성 인근의 몇몇 다른 장시들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이점들이었다.

하지만 송과장의 경우에는 다른 장시들과 차별적인 이점도 있었다. 송과장이 위치했던 광주는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었고 18세기 말 유수부로 승격되었던 지역이었다. 송과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곳에 장시가 개설된 시점부터 혁파 논란 이후 장시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까지 ‘군사상의 명분’이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기존 송과장 또는 송과상인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⁵⁾

사실 조선후기 상업은 군사문제와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구체적인 실례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후기 서울 지역 군병(軍兵)들의 상업 활동이다. 임진왜란 이후 군문(軍門)이 증설되며 서울 인근의 군병들이 늘었고, 훈련도감의 경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운영되며 군병들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였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급료 지불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군병들이 자체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든 수공업품[受持之物]을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비시전상인으로서도 시전처럼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패(市牌)’라는 일종의 상업 허가증을 지급해주기도 하였다.⁶⁾ 이 군병들의 상업활동은 도고 활동을 벌이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⁷⁾ 군병들의 상행위는 시전

5) 김대길, 앞의 책, 1997, 259~264쪽에서 조선왕조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보(鎭堡) 등을 설치하며 동시에 장시를 신설 또는 이설하는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6) 변광석, 앞의 책, 2001, 169~170쪽

7) 최주희, 「18세기 중후반 훈련도감의 立役 범위 확대와 도감군의 상업활동」 『한국사학보』 71, 고려사학회, 2018. 노영구 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상인들과 충돌하며 ‘난전(亂塵)’의 주축으로 여겨져 논란이 되었고, 결국 시전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⁸⁾

한편,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해 각 관청들이 상업활동을 통해 재정 수입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진행되며 있다.⁹⁾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등의 중앙 군영들도 재정 보충 수단으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였다. 지방에서도 강화도 구관청(句管廳), 평양 천류고(泉流庫), 개성부, 통영(統營), 그리고 여타 병영·수영 등에서 어(漁)·염(鹽)·철(鐵)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벌였던 사례가 확인되었다.¹⁰⁾

군문이나 군병들이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군사시설 인근에서 자연스레 상업이 발달한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전라병영이 있었던 강진(康津) 지역에서 활동한 ‘병영상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19세기 말 병영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박씨가(朴氏家)의 문서들이 최근 소개되면서 이 지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전국적으로 왕성하였던 점이 논의되었다.¹¹⁾ 이들 연구에서는 ‘북에는 개성상인[松商], 남에는 병영상인[兵商]’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¹²⁾ 이렇듯 강진의 상인들이 전국단위의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전라병

8) 백승철, 『朝鮮後期 商業史研究：商業論·商業政策』, 한국연구원, 2000, 265쪽

9) 백승철, 「朝鮮後期 官廳의 商業活動과 그 構造」, 『한국사연구』 106, 1999

10) 백승철, 앞의 책, 2000, 234~235쪽; 백승철, 「조선 후기 서울 관청과 군문의 상업 활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282~288쪽

11)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의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김덕진,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주희춘, 「병영상인 박세정의 기업경영과 상인정신」, 『다산과 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주희춘, 『병영상인, 경영을 말한다』, 남양미디어, 2017; 김덕진,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김덕진, 「19세기말~20세기초 전라도 강진 병영지역의 환(煥) 사용 실태와 메커니즘 - 박약국(朴藥局) 장부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79, 호남사학회, 2020

12) 주희춘, 앞의 논문, 2017, 192쪽

영의 존재가 꼽힌다. 병영성은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곳이었으므로 그곳의 장시도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한강변 용산·마포·서강 지역들이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요 창고들이 위치하였고 전국에서 실어오는 세곡이나 여타 물자들이 하역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¹³⁾ 즉 군사시설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현상은 그 자체로 인근 지역의 상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상업과 군사제도의 관계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송과장의 성장 배경으로서 그 군사적 입지조건을 주요하게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송과나루가 수어청에 소속되며 군영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었던 사정을 주목하며, 인근 나루[津渡]·진선(津船)·둔전(屯田)에 대한 군영의 관리 체계, 송과나루에 위치했던 진사(鎭事)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남한산성의 군량창고로 설치되었던 송과창(松坡倉)과 갑사창(甲士倉) 등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는, 수어청·광주유수부·남한산성의 재정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도,¹⁴⁾ 송과장에 대한 상업사 관련 논문에서도 ‘송과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¹⁵⁾ 그러나 당시 사료에서는 송과창에 대한 기록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으므로, 관련 사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입지조건과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13) 고동환, 앞의 책, 1998 참조.

14) 차문섭,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조낙영, 「19세기 광주유수부의 남한산성 재정운영 -稅入항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15) 송과창에 대한 언급은 송과구의 ‘지역사’ 복원 차원의 저술들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서일수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과구』 제2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17쪽에서 ‘송과나루 인근의 송과창’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또 김미정, 『조선후기 송과나루와 송과장』, 송과문화원, 2019에서도 송과창의 존재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다. 4장에서는 송파장 개설의 기본 취지, 그리고 혁파 주장에도 불구하고 송파장이 유지·변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그 군사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송파나루의 군사적 입지 조건

조선후기 한강변의 나루들은 해로·수로를 통해 운반되는 물류의 집산지로 기존 상업사 연구들에서 주목되었다. 한강 최상류에 위치했던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은 도성 인근을 흐르는 이른바 ‘경강(京江)’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과 경강을 잇는 입구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들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은 국방상의 이유로도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이곳은 조선시대 도성과 남한산성을 잇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1624년(인조 2)이었지만, 그 이전 신라 때부터 같은 곳에 ‘주장성’이 있었고,¹⁶⁾ 이후로도 ‘광주 산성’¹⁷⁾ ‘일장산성’¹⁸⁾ 등의 명칭으로 불리던 산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고려시기 몽고군의 침입 때 항전을 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기도 광주 지역의 국방상 중요성은 조선시대 때에도 계속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목은 한양의 거진(巨鎭)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선조 때 광주목이 광주부로 승격되었

1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남한산성 발굴조사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장성(畫長城)의 옛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심광주, 「남한산성 출토 銘文瓦에 대한 일고찰」,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17)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10년 11월

1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광주부의 국방상 중요성이 더 높게 인식되어 유수부로의 승격이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고, 1795년(정조 19) 최종적으로 유수부로 승격되었다.¹⁹⁾

유수부는 옛 도읍지, 국왕의 행궁이 있는 곳, 군사적 요충지 등에 설정하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특히 서울의 외곽 방어를 맡는 군사적 기능이 두드러졌다. 광주유수부는 다른 유수부들 중에서도 도성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비상시 서울에 필요할 물자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이렇듯 군사상 요충지였던 경기도 광주 지역과 한성을 오가는 길목이었던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도 일찍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조선 초에는 광나루의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나루는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아차산성과 백제의 토성들과 관련한 주요 교통로로 알려져 있다. 조선 1414년(태종 14)에는 광나루에 도승(渡丞)이 배정되었다.²⁰⁾

한편, 삼전나루가 도(渡)의 지위로 1439년(세종 21)에 개설되고,²¹⁾ 삼전도승(三田渡丞)이 광나루까지 관장하게 되면서²²⁾ 삼전도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삼전도는 헌릉(獻陵)이나 선정릉(宣靖陵)으로 가는 능행 때 노량진의 대안 경로로 선택되기도 했다.²³⁾ 이때 군병들이 인근의 송파나루를 건너게 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곧 송파나루가 삼전도보다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송파진은 삼전도와 광진보다 앞서 기재되고 있으며, “(송파진이) 삼전도와 무동도(舞童島)를 주관한

19) 그 이전에도 인조 때와 영조 때 두 차례 광주부가 유수부로 승격된 적이 있었으나 몇 년 만에 다시 부로 개편되었다.

20)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12월 3일

2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1439) 7월 7일

22) 『세조실록』 권12, 세조 4년(1458) 3월 24일

23) 『현종실록』 권8, 현종 5년(1664) 2월 29일

다.”라고 하였다. 또 삼전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도승(渡丞)이 있었는데, 송파로 옮겼다.”라고 하였다.²⁴⁾ 삼전도가 병자호란 이후 치욕의 장소로 기피되어 통행량이 줄게 되면서, 송파나루가 삼전도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에서는 삼전도는 ‘삼전도비(三田渡碑)’로만 표시되었고 그 옆의 송파나루가 주요 나루로 표시되었다.²⁵⁾ 지도상에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교통로 역시 송파나루를 지나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속대전』에서도 이미 송파별장이 광진·삼전도·신천을 겸하여 관장한다고 하였다.²⁶⁾

<그림 1>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의 송파나루 부분 확대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京畿 廣州牧

25) 『東國輿圖』 「京江附臨津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26)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각 나루에 배치된 관선(官船)도 광진과 삼전도에 비해 송파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다음 <표 1>은 조선후기 한강 나루들에 배정된 진선(津船)들의 수를 법령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송파나루에는 17세기 말 관선이 6척 배치되었다가 18세기 중반 9척으로 늘어났다. 이 수는 한강진과 노량진에 비해서는 적은 수였으나, 송파나루의 관할로 되어 있었던 광진과 삼전도, 또 신천의 관선까지 합하면 한강진·노량진의 관선 수를 능가하였다.

<표 1> 한강변 각 나루의 관선(官船) 배치 변화

	『수교집록』 工典 雜令 (1682) 『전록통고』 工典 雜令 (1682)	『속대전』(1746) 권6, 工典 舟車
광진(廣津)	4척	4척
송파(松坡)	6척	9척
삼전도(三田渡)	3척	3척
신천(新川)	-	2척
한강(漢江)	15척	15척
노량(露梁)	15척	15척
양화도(楊花渡)	2척	9척
공암(孔巖)	5척	5척
철곶(鐵串)	1척	1척
엄지산(奄之山)	5척 (신설)	-

각 나루에 배치된 진선 즉 ‘나룻배’는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기능만 하지는 않았다. 이 진선들은 군사적 기능을 하며 나라에서 엄격히 관리되었고, 병조에서 관장하였다.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나루[津]마다 각각 별선재무(別選才武) 한 사람을

보내 별장(別將)과 함께 엄수하게 하고, 나룻배를 모두 북쪽 물가 언덕에 모아 두고서 행인이 모이게 되면 상세히 검열하여 건너 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속대전』에서는 “각 나루[津]의 관선(官船)은 정액을 기록해두고 여러 군문(軍門)에 나누어 소속시키며, 별장(別將)을 차정하여 검찰한다.”라고 규정하였다.²⁷⁾

이렇듯 조선후기 별장이 각 나루의 관선들의 관리를 맡게 된 것은, 조선전기 도승(渡丞)이 이 일을 관장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각 별장들은 군영에 소속되는 군관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 2>은 『속대전』과 『만기요람』에 정리된 ‘4진(四津)’ 별장들의 관할 구역과 소속 군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듯 한강 상·중·하류의 각 진선들을 각 군영에 소속시켜 관리하게 한 것은 1710년(경인년) 민진후의 건의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⁸⁾

<표 2> 『속대전』·『만기요람』에 기록된 한강 ‘4진(四津)’ 별장들의 소속 군영과 관할 구역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만기요람』 재용편3, 海稅	
	소속 군영	검하여 관장하는 곳	소속 군영	관할구역[字內]
송과 별장	수어청	광진, 삼전도, 신천	수어청 (지금은 광주에 부속)	광주, 동잠실, 광진, 독음
한강 별장	훈련도감		훈련도감	압구정, 두모포, 독도(뚝섬), 몽계정, 한강, 서빙고
노량 별장	금위영		금위영	과천, 신촌리, 사촌리, 광계, 형제정계, 마포
양화 별장	어영청	공암, 철곶	어영청	옥정리, 용리상하계, 현석리, 울도(밤섬), 다인리, 하중리, 합정리, 수일리, 망원정1·2계, 시흥, 신정리

27)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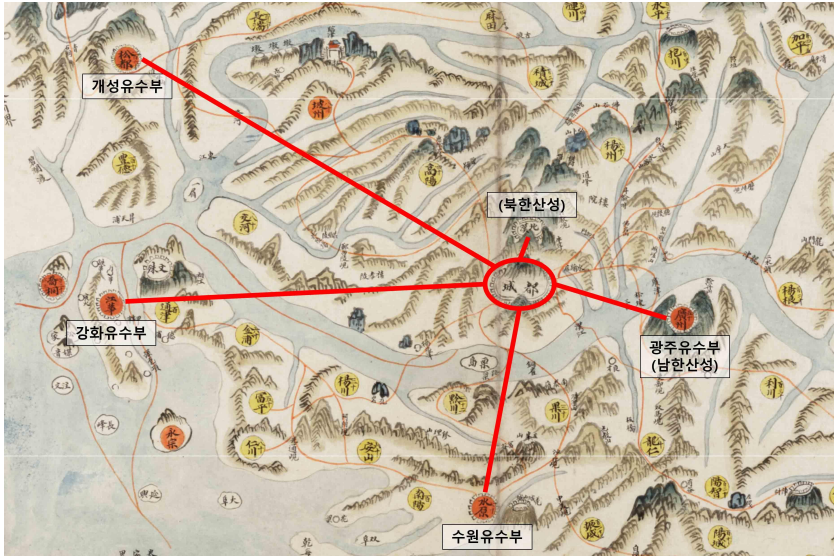
28)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1741) 12월 12일

표에서 보듯이, 송파는 조선후기 군영 소속의 별장이 관장하는 4개 나루 중 하나에 속했다. 1708년(숙종 34) “송파는 남한(산성)에 있어 가장 긴요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좌의정 이유의 건의로 송파는 수어청에 소속되었고, 수어청의 장교가 송파 진도별장(津渡別將)을 겸직하게 되었다.²⁹⁾ 이렇게 수어청에 소속된 송파 나루는 어영청의 양화진, 금위영의 노량진, 훈련도감의 한강진 등과 함께 한강변 나루 중 군사상의 요충지로 꼽히게 되었다. 총융청 관할이었던 북한산성까지 포함하면, 5군영의 주요 거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수어청은 인조 때 남한산성을 수축하면서 그 일대의 방어 즉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설치된 군영이었다. 또한 남한산성이 속해 있던 광주는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그림 2>와 같이 개성·강화·수원 등과 함께 조선후기 유수부체계 또는 도성방위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수어청과 남한산성이 차지하는 군사상의 위상을 감안하고, 또 남한산성과 수어청의 운영에서 송파나루가 차지했던 그 ‘긴요함’을 고려한다면 송파나루의 국방상 역할은 더욱 선명해진다.

29)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8월 21일

<그림 2>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유수부 4개의 유수부



* 출처 : 『동국여도』 「기전도(畿甸圖)」

다음은 송파나루와 그곳의 진선(津船)들이 지나는 국방상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자료들이다.

(병조판서)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강화도나 남한산성을 돌아가는 곳으로 삼는데, 만일 양화도(楊花渡)·갑곶진(甲串津)·삼전도(三田渡)·송파진(松坡津)에 배가 없으면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후략)”³⁰⁾

공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중략) 각 진선은 합하여 63척입니다. 비단 행인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또 이는 남한산성과 강화도[江都]의 변란에 대비[待變]하기 위

30)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1702) 10월 5일

한 기계(器械)이므로 그 관계의 긴요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엇그제 수어사 민응수(閔應洙)의 아뢰므로 인하여
광진·송파·삼전도의 배를 수어청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후
략)”³¹⁾

공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송파 이상의 진선은
남한(산성)의 대변선(待變船)이고 노량 이하의 진선은 강
화도의 대변선입니다. 그러므로 경인년(1710)에 정탈(定奪)
할 때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진별장(津別將)을 차출하여
선척을 관검(管檢)하게 하고 선부(船夫)도 별장으로 하여
금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즉 선척은 각 군문에 분속(分屬)
되어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후략)”³²⁾

수어청에서 아뢰기를, “송파·광진·신천(新川) 등의 진선(津
船)은 기한이 차는 대로 본청(수어청)에서 담당하여 개조
하기로 임술년(1742)에 연중(筵中)에서 조례로 정하였습니
다. 3진의 진선 3척은 금년이 개조할 연차(年次)여서 거기
에 들어가는 선재(船材) 60그루를 현재 강원도 홍천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전례대로 반출을 금하지 말라고 묘당에
서 관문을 보내서 그 도에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진교하였다.³³⁾

(광주유수 이기진이) 또 아뢰기를, “병조판서도 진선(津船)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송파(松坡)와 삼전(三田) 두 나루는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비단 평시에 불통을 통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긴박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관할하는 곳의 사용
이 어떠합니까? (중략) 앞으로는 군문에서 맡은 선재(船

31)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1741) 12월 12일

32) 『비변사등록』 110책, 영조 18년(1742) 4월 12일

33)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1747) 7월 7일

材)는 특별히 금송(禁松)하지 말라고 거행조건(舉行條件)에 내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중략) 대체로 광주의 진선은 다른 나루에 견주어 매우 중합니다. 옛날 인묘(人廟, 인조)께서 창황히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이 나루를 거치셨으니 그 중함은 이리합니다. 나루마다 모두 주관하는 군문이 있고 이 나루는 수어청이 주관합니다. (후략)”³⁴⁾

위와 같이 송파나루의 진선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으로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변선(待變船)’으로 중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파나루는 다른 나루들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³⁵⁾ 1728년(영조 4) 한강변의 나루가 대거 통폐합되었을 때에도, 송파나루와 광나루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변의 작은 나루들을 예속하기도 하였다.³⁶⁾ 송파 일대의 진선들은 수어청에 배속되어 관리되었고, 그 진선을 개조할 때 필요한 목재는 강원도 금송령(禁松嶺)에서도 예외가 적용되는 관문이 발급되었다.

송파는 진사(鎭舍)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진관체제(鎭管體制) 아래 경기도에는 한성을 주진(主鎭)으로 하는 5개의 거진(巨鎭)이 있었는데 그 중 광주가 속해 있었다. 이 광주의 진사 건물은 송파나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3>은 1872년의 「광주전도」에 표시된 진사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³⁷⁾ 이 지도에는 삼전도와 송파진도 표시되어 있고, 진사는 그 사이에 그려져 있다.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34)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1751) 9월 1일

35) 위에 인용한 사료에서도 송파와 삼전이 ‘다른 나루에 견주어 매우 중합니다.’라고 하였고, 그 이전의 사료에서도 “송파둔(松坡屯)과 삼전도(三田渡)는 다른 나루와 다름이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었다[『숙종실록』 권65, 숙종 46년(1720) 1월 25일].

36)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1일

37) 「廣州全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57, 1872 지방지도)

있는 「송파진(松坡津)」 그림에서도 진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송파나루에 그려져 있다.³⁸⁾ 그 서쪽에 삼전도비각과 남쪽 멀리 검단산 능선의 남한산성이 그려진 것도 <그림 1>의 표시와 상호 일치된다.

문헌사료에서도 ‘송파진(松坡鎭)’ 또는 ‘송파진사(松坡鎭舍)’라는 표현이 나온다.³⁹⁾ 정조 17년(1793) 초 전년도의 장마 때 송파 일대가 수해를 입었고 이때 무너진 진사를 고쳐짓는 일에 대해 논의되었던 것이었다. 진사는 진장(鎭將)이 주둔하는 곳으로 국방상 긴요한 곳이었으므로 그 수리·보수 또는 이설(移設)의 일은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림 3> 「광주전도」(1872년 지방지도)에 표시된 송파나루와 진사(鎭舍)



이렇듯 군사상 요충지였던 송파에는 군대와 둔전(屯田)도 편성해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713년(숙종 39)의 기록에 따르면, 송파나루의 군대 1초(哨)와 갑사둔(甲士屯)을 수어청의 천

38) 겸재 정선의 「송파진」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9, 112쪽에서 참조.

39)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총(千摠) 아래 속하게 한다고 하였다. 천총은 수어청의 3영(營) 2부(部) 체제에서 한 부(部)의 지휘를 맡은 직책이었다. 이 군대는 얼음이 얼 때 모아서 점검하고 사열[點閱]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중에서 수첩군관(守堞軍官)⁴⁰⁾을 가려 뽑기도 하였다.⁴¹⁾ 이 군대는 본래 나루의 사공이었던 진부(津夫)들의 자손들과 강변 거주민들을 모집하여 편성하였던 것이었는데, 뱃일[水業]을 하지 않는 농업 종사자들도 더 모집하여 인원을 보충하려 하였다.⁴²⁾

갑사둔은 송과 근처에 있었으며 ‘송과둔(松坡屯)’으로 일컬어 지기도 했다.⁴³⁾ 이 갑사둔에도 별도로 1초(哨)의 군대가 있었고 진부들도 모두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⁴⁴⁾ 매년 봄이 지나면 수어청 천총이 나루 앞에 나와 이 군대의 점검과 사열[點閱]을 진행하였고 수첩군관들도 함께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한편, 이곳에 있었던 둔전은 이곳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토지로 운영되었다. 수어사를 지냈던 이유(李濡)가 1704년(숙종 30)에 한 말에 따르면, 둔전을 곳곳에 설치해두고 별장을 보내 경작민들에게서 세를 받아 군수에 보태는 것이 원칙인데, 별장이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

40) 수첩군관에 대해서는 김준형, 「조선후기 수첩군관(守堞軍官)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처지 - 진주의 수첩군관(守堞軍官)과 성정군(城丁軍)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 『역사교육논집』 64, 2017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41) 『숙종실록』 권54, 숙종 39년(1713) 11월 20일 ;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1713) 11월 21일

42)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1713) 11월 21일

43) 1847년(헌종 13)의 사찬읍지인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도 당시 남한산성 수어청의 둔전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송과둔’이 기재되어 있다(『중정 남한지』 권5, 둔전조 ; 김윤희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과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244쪽 참고). 다음 3장에서 다루게 될 송과장이 『여지도』에서 ‘수어둔창(守禦屯倉)’으로 불린 사례도 보이는데, 이 역시 송과에 수어청 관할의 둔전이 있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재확인시켜준다.

44) 『숙종실록』 권65, 숙종 46년(1720) 1월 25일

결하기 위해 둔전을 산성 아래로 옮겨 설치하고 성내의 백성들에게 성을 나들며 농사짓게 하고 광주부가 검칙을 하도록 하라고 제안하였다.⁴⁵⁾

한편, 강변에 사는 백성들은 나루의 방수군(防守軍)으로도 징발되었다. 1728년(영조 4) 송파에서 공암(孔巖)에 이르는 구간에 서울 방수군이 부족하자 강변 백성들을 ‘좌경(坐更)의 예’에 따라 징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송파진과 한강진 사이에 촌락이 드물어 배열해 서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여 징발에 더욱 신경을 썼다.⁴⁶⁾ 이때 양주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송파나루에는 50명의 군병이 배치되었다고 하며,⁴⁷⁾ 금위영의 말에 따르면 송파나루에 별도의 장교 1명과 향군 12명을 각별히 뽑아 보내 운번으로 지킨다고 하였다.⁴⁸⁾

나루에 배치된 방수군은 맡은 구역을 파수(把守)하며 “황당한 사람이 배를 타고 넘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들 나루의 방수군들은 행인의 통행을 단순히 금지시켰던 것은 아니었고 행인들을 살피고 수색하여 건너 보내주고 밤에 배가 건너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장계(狀啓)의 경우 밤낮을 막론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행인들에게서 돈이나 물건,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였다.⁴⁹⁾

1735년(영조 10) 양역(良役)의 수를 감축하던 때의 기록에 따르면, 수어청 소관의 송파나루에는 군관 135명과 진군(津軍) 129명이 정액 이외에 새로 창설되었다고 하면서도 이곳의 ‘방수(防

45)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1704) 6월 10일

46) 『영조실록』 권16, 영조 4년(1728) 3월 26일 ;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6일

47)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30일

48) 『영조실록』 권17, 영조 4년(1728) 4월 4일

49)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6일 ;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30일

守)가 긴요'하다는 이유로 감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⁰⁾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1739)에서는 수어청 소속의 송과진군관이 200명, 진군(津軍)이 12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당수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지역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군대로 차출되어야 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이 곧 안정적 인구 확보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4장에서 후술하듯이, 안정적인 인구 모집을 위해 송과장을 설치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3. 송과창(松坡倉)의 설치와 남한산성의 창고 운영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4진(津)', 즉 군영에 소속되고 별장이 파견되었던 송과·한강·노량·양화 나무들은 <그림 4>의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에서 깃발과 붉은 색 건물로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무들과 차별성을 갖는다.⁵¹⁾ 이때 그려진 건물들은 진사(鎭舍)를 표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서강·마포·용산 일대에도 같은 형태의 건물들을 표시해두었는데, 총융창, 광흥창, 사복창, 군자감, 만리창 등이 그것이다.⁵²⁾ 이들은 모두 중앙재정과 관련된 주요 창고들이었고, 광흥창과 선혜청의 별창(別倉)이었던 만리창을 제외하고는 군수 물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고들이었다. 이들 창고들은 수로를 통한 물자 운반의 용이성으로 한강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4진'에 각각

50) 『비변사등록』 96책, 영조 10년(1735) 9월 5일

51) 『東國輿圖』 「京江附臨津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52) 김미성, 「조선 후기 서울지역 고군의 분포와 집단행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113쪽 참조.

표시된 건물들도 단순히 진사 건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창고 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 『동국여도』 「경장부임진도」에 그려진 군영 소속의 ‘4진(津)’



특히 송파나루에는 송파창(松坡倉)이라는 남한산성의 군량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의 『동국여도』 「남한산성도」에서는 송파나루에 그려진 건물에 ‘송파창’이라고 기재해두었다.⁵³⁾ 「경장부임진도」에 그려진 송파나루의 건물과 위치상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산성을 위주로 그린 「남한산성도」이기에 다른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길이 송파창을 지나 송파나루[松坡津]를 건너 도성[京城]으로 곧장 연결되도록 묘사하였다.

53) 『東國輿圖』 「南漢山城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그림 5> 『동국여도』 「남한산성도」의 부분 확대



송파창은 진사와 함께 위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1708년(숙종 34) 민진후는 송파의 진도별장이 거처할 관사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며 수어청 송파 별감(別監)에게 진도별장을 겸하게 하고 창사(倉舍)에 들어가도록 하고 창감(倉監)도 겸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⁵⁴⁾ 장마로 파손된 송파 진사를 복구·이설하는 것을 논의하였던 1793년(정조 17)에도 근처 민가 50여 칸을 사서 진사로 고쳐 쓰고 다시 몇 십 칸의 창고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다.⁵⁵⁾ 이러한 언급들을 토대로 볼 때, 진사와 창사는 위치상 큰 구분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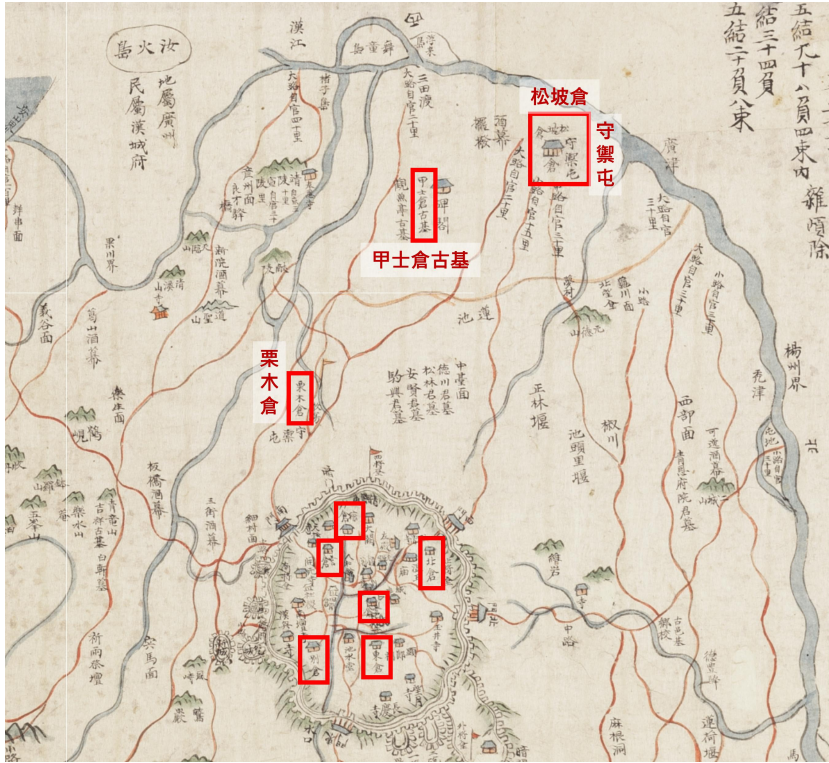
남한산성에 딸린 창고가 송파창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남한산성도」에서 송파창을 부각하여 그린 것도 주목된다. <그림 6>의 『해동지도』를 보면, 남한산성에 딸린 여러 창고들의 위치를 확인할

54)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8월 21일

55)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수 있다.⁵⁶⁾ 그 중 성 밖에 위치한 창고로는 감사창, 송과창, 울목창의 명칭이 확인된다.

<그림 6> 『해동지도』에 표시된 남한산성 성내외의 창고들



감사창의 경우에는 지도상에 ‘고터[古基]’라는 표현이 붙어있고 따로 건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 작성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 기록에 해당되는 『수어청등록』에는 감사창과 송과창이 각각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며⁵⁷⁾ 1702년(숙종 28) 기록에서도 두 창고가 모두 확인되는

56) 『海東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v.1-8)

데,⁵⁸⁾ 18세기 중반의 『해동지도』에는 갑사창이 ‘고터’로 적힌 것을 볼 때 그 사이 기간에 갑사창이 폐지되고 송과창만 남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1704년(숙종 30년)의 기록에서 송과창을 율목정으로 옮긴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⁵⁹⁾ 이후에도 율목창과 송과창은 각각 따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7> 『여지도』에 표시된 남한산성 밖 창고들



갑사창 터가 삼전도에 위치하였던 반면, 송과창은 송과나루에 인접해 있었다. 송과창은 ‘수어둔(守禦屯)’과도 인접한 것으로 표시되

57)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 『수어청등록』 97면, 신미년(1691) 3월 28일

58)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6월 27일

59)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1704) 6월 10일

어 있어, 근처에 둔전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여지도』에서는 송과창이 아예 ‘수어둔창(守禦屯倉)’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⁶⁰⁾

이들 산성 밖의 창고, 특히 강변의 창고는 한강을 통해 운송되는 곡식과 물자들을 운반하여 저장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험준한 산성 안에 위치한 다른 창고들에 비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1702년(숙종 28)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전라도·충청도[三南]에서 한강 하류를 거쳐 남한산성으로 보내지는 쌀 1만 석과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충청도[湖西]의 쌀 8천 석이 일차로 송과창에 운반된다고 하였다.⁶¹⁾ 이것을 최종 목적지인 남한산성까지 운반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류에서 오는 선박이 몸체가 커서 상류로 올라가기 어려워므로 경강(京江)에서 정박한 후 다른 배를 빌려 실어 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박과 수로를 통해 운반된 물자를 험준한 산성까지 운송하는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선가(船價)와 마가(馬價)를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송과창은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변 나루에 정식 창고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역된 곡식을 임시적·항시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배에서 하역된 곡식을 곧바로 급히 산성까지 옮겨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뜻이었다. 앞선 1702년의 기록에서도 상류에서 운반된 8천 석의 호서미는 송과창에 직접 납부하게 하였고,⁶²⁾ 하류에서 온 1만 석만 곧장 산성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송과창이 한강변에 있어

60) 『輿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68-v.1-6)

61)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1월 18일

62) 『수어청등록』에서도 송과창이 호서곡의 종착지로 종종 거론된다[『수어청등록』 61면, 경오년(1690) 2월 25일 ; 63면, 경오년(1690) 3월 초8일].

서 배로 운반하기 편리”하다는 인식은 자주 보인다.⁶³⁾

수로를 통해서 운반되는 물자의 경우만 송파창이 유리했던 것은 아니었고, 광주 일대 각지의 백성들이 납부해야 하는 물자들도 높은 산성보다는 평지의 송파창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했다. 특히 성 북쪽 아홉 면(面)에 사는 백성들은 산성에 납부하는 것보다 송파창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했다.⁶⁴⁾ 군인들이 급료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송파창에 두었던 호서곡은 그곳의 군대[哨]에게도 지급되었기 때문이다.⁶⁵⁾ 남한산성의 이전곡(移轉穀)을 갚을 때에도, 포천(抱川)·양근(楊根) 등지는 송파창에 납부하도록 하여 성에 올라야 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하였다.⁶⁶⁾

송파창의 곡식을 산성으로 옮겨야 할 때에도, 정부는 그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곡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봄에 백성들에게 환곡미를 나누어줄 때는 송파창에서 받아가게 하고, 가을에 갚을 때는 산성으로 바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⁶⁷⁾

이러한 방법은 1702년에 공조참판 이인엽(李寅燁)과 병조판서 김구(金構), 호조판서 김창집(金昌集)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수어청등록』의 1689년 기록에서도 감사창과 송파창의 곡식으로 조적(糶糶)을 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나오는 것을 볼 때,⁶⁸⁾ 관련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구는 산성이 높고 험한 것에 비해 광주는 땅이 넓어 백성들이 환곡을 받을 때에도

63) 『비변사등록』 158책, 정조 1년(1777) 10월 22일

64)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5월 13일

65)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66) 『영조실록』 권87, 영조 32년(1756) 3월 17일

67)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1월 18일 ;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3월 1일 ;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6월 27일

68)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 46면, 기사년(1689) 9월 13일 ; 48면, 기사년(1689) 9월 23일 ;

강창(江倉)으로의 접근성이 좋다고 보았다. 한편, 1774년(영조 50) 무렵에는 송과창에 군량미를 보관해두는 것이 운반하는 백성에게도, 호조에서 가져다가 쓸 때에도 편리하다고 하였다.⁶⁹⁾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⁷⁰⁾ 북한산성에도 적용되어 북한산성의 환곡은 평창(平倉)에 바치고 남한산성의 환곡은 송과창에 바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⁷¹⁾ 산성으로의 수납이 제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도,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송과창을 매개로 하는 환곡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⁷²⁾

한편, 강변 송과창이 수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창고 물자를 산성으로 급히 옮기기보다는 도성의 공물주인(貢物主人)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택했다. 1702년 장마 때 갑사창은 겨우 물난리를 피했으나 송과창은 물이 문까지 들어와 광주부윤이 급히 배를 구해와 쌀을 꺼내 실어두었다고 하였다.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창고로 다시 옮길 수도, 오랫동안 배에 실어 둘 수도 없었으므로, 전 수어사였던 김진귀(金鎭龜)는 그 대부분을 선혜청으로 옮기고 공물하인(貢物下人)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봄에 수어청에 반납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⁷³⁾ 1708년(숙종 34)에도 송과창의 군량을 수해 때 도성 공물주인들에게 주었다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론되었다.⁷⁴⁾

송과창은 한강 상류에서 목재를 운반해오는 상인에게서 세를 징수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었다.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송과창은 남한산성 군향고(軍餉庫) 바닥에 끼는 송판[鋪板]을 조달하

69) 『비변사등록』 156책, 영조 50년(1774) 8월 19일

70) 『비변사등록』 167책, 정조 8년(1784) 10월 6일

71) 『비변사등록』 156책, 영조 50년(1774) 8월 19일 ;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1837) 11월 11일

72)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1758) 1월 15일

73)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 6월 27일

74)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2월 10일

기 위해 한강 상류 판자상[板商]들로부터 세를 받아썼다고 하였다. 그런데 1722년(임인년)에 호조의 물력이 부족한 문제로 송과창의 수세권을 없애버렸고, 대신 매년 200립(立)의 판자를 호조에서 송과창에 떼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28년 당시까지 호조가 판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서, 송과창의 군량미가 축축한 땅에 방치되어 썩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시 송과창의 수세권을 복구하여 매년 200립씩의 판자를 세로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이때 강원도 금산(禁山)에서 도벌(盜伐)되었다가 강원감사에게 속공(屬公)된 송판 1,000여 립을 호조와 송과창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써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그것은 모두 호조에 귀속되었고 200립에 대한 송과창의 수세권만 복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⁷⁶⁾ 이러한 송과창 판자 수세권 복구 결정은 『탁지지(度支志)』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⁷⁷⁾

당시 중앙에서 필요한 관수용 목재들은 대체로 강원도에서 수로를 통해 운반되어 왔다. 강원도에서 보내는 뗏목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은 뚝섬 등 한강 상류 지역이었다.⁷⁸⁾ 송과나루도 한강 상류의 나루였으므로, 송과창은 떠내려오는 목재를 바로 취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과창 또는 남한산성에서 필요한 목재를 따로 도성에서 분급 받을 필요 없이, 수로로 운반 중인 목재상들에게 일정한 수의 목재를 세(稅)의 명목으로 거두어 쓰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선을 제작할 때에도 목재가 필요하였고 이때의 선재들은 강원도 금송령에서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다. 남한산성은 ‘보장(保障)의 중지(重地)’였으므로,⁷⁹⁾ 여기에서 쓰이는 목재

75)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1월 29일

76)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2월 3일

77) 『度支志』 外篇 권8, 版籍司 財用部 雜稅事實

78) 뚝섬이 목재 집하지였던 점은 고동환, 앞의 책, 250~251쪽 등에서 설명된 바 있다.

의 조달 과정에서는 우선권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18세기 중반에는 진선의 제작·수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도고별장(都庫別將)을 차출하여 진선 제작을 맡기고 값을 지불하기도 하였다.⁸⁰⁾

송과창은 도성에서 쓰일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1720년(경종 즉위) 국장도감(國葬都監) 때 필요했던 참나무[眞木] 68그루를 서울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남한산성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남한산성 안의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목재를 송과창으로 운반[曳下]하게 한 후 배로 실어 나를 계획을 세웠다.⁸¹⁾

이상과 같이 남한산성의 외창(外倉)으로서 송과나루 강변에 위치하였던 송과창은 전국 각지에서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군량미들과 목재들을 효율적으로 집산하는 역할을 하는 창고였다. 송과창은 남한산성의 재정 운영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백성들의 세납과 환곡에서도, 또 강원도를 오가는 목재상들에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고였다. 이러한 송과창의 군사상 중요성은 곧 이곳으로 물자가 집결되는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물자 집결지로서의 성격은 송과창의 운영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공공물자의 집산(集散) 거점이자 통로였던 이곳은 교통상의 이점과 맞물리면서 공인(貢人) 또는 민간 상인의 통로로서도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79)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2월 3일

80)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12월 12일

81) 『비변사등록』 73책, 경종 즉위년(1720) 6월 23일

4. 송파장(松坡場)의 설치와 광주유수의 보호

송파 지역은 군사상 요충지였으므로, 이곳은 안정적인 인구의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주지하듯이 국방상 요충지나 변방 지역에는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고, 강제적인 사민(徙民) 정책이 취해지기도 하였다. 새로 궁을 짓거나 또는 군사시설을 설치한 이후 그곳의 방어를 위해서 민가를 모집하는 것 즉 ‘모민(募民)’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었다.⁸²⁾

송파나루에 장시를 처음 개설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파는 국방상[堡障] 중요한 나루[要津]이었기 때문에 진(鎭)과 창고를 설치하였으나, 본래는 진군(鎭軍)과 모민들이 매우 빈천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진후가 수어사로 있을 때 ‘장시를 창설하여 백성들을 가려 모여 살게 하였다’고 하였다.⁸³⁾ 송파장은 본래 남한산성 가까이에 설치되었는데 18세기 중반 무렵 송파로 옮겨서 설치되었다.⁸⁴⁾

송파 장시 개설의 효과는 좋았다. 이 지역은 교통상의 요지이기도 했으므로, 송파장은 크게 번성하였다. 19세기 초 『만기요람』에서는 전국의 향시(鄕市) 중 15개의 대장시를 꼽았는데 여기에 송파장이 포함되었다.⁸⁵⁾ 민진후가 수어사로서 송파장의 개설을 추진

82) 사도세자의 사당으로 지어졌던 경모궁 인근의 모민(募民)에 대해서는 김동철,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2011 논문이 참고된다. 서울 지역 주요 창고 근처의 ‘창저모민(倉底募民)’에 대해서는 김미성, 앞의 논문, 2021, 113~115쪽을 참고할 수 있다.

83)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18일

84)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8일

85) 『만기요람』 재용편5, 各廳 附 鄕市

한 시점이 18세기 초였고, 남한산성쪽에서 송파쪽으로 옮겨진 것이 18세기 중반이라고 한다면,⁸⁶⁾ 송파장은 개설된 지 백 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인 대장시로 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파나루는 국방상의 위치로서 뿐만 아니라 유통로상에서도 교통의 요지였다. 수로의 측면에서도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어 경강으로 흘러가는 입구에 위치하여 강원도·경상도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육로의 측면에서도 송파나루는 도성과 광주를 잇는 길목에 있었고 이 길은 충주로 뻗어나가 ‘봉화대로’와 ‘동래대로’ 불리는 조선시대 서울-지방간 대로와 연결되었다.⁸⁷⁾ 이러한 교통상 요지에 개설된 장시였으므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기 쉬웠고, ‘임금님 꿀단지도 송파를 거친다’라는 이야기가 생겨날 정도였다.⁸⁸⁾

국방상 요지인데도 사람이 적은 것을 걱정하던 송파 지역은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18세기 중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 중대면의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중대면에 속한 여러 동리 중에서 송파동의 호구수가 가장 많아 다른 동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인근 삼전도리의 호구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송파동의 호구수는 중대면 전체 호구수의 30% 이상이었고, 삼전도 호구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 즉 이 지역의 인구는 주로 나루 근처에 모여 살았다고 할 수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같은 중대면의 호구수가 총 726호와 3,044명으로 나와⁸⁹⁾ 『여지도서』의 기록보다 호수 70호, 인구 200명 정도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 이들 호구 기록을

86) 1755년의 기록에 “송파에 장시가 설치된지는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87) 송파나루가 수로·육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니는 특징은 김미성, 앞의 책, 2019에서 정리된 바 있다.

88) 최완기, 1994, 앞의 책, 270쪽.

89) 『戶口總數』 2책, 京畿 廣州

신뢰할 수 있다면, 18세기 후반 30년 사이에 이곳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18세기 중반 경기도 광주 중대면(中臺面)의 호구수

	관문 (官門) 에서의 거리	편호 (編戶)수	남자 수	여자 수	총 인구수	중대면 전체 인구 중 비율
거여미동(巨味洞余)	20리	62호	107명	178명	285명	10.00%
오금리(梧琴里)	20리	38호	87명	114명	201명	7.05%
장지리(長旨里)	15리	27호	70명	98명	168명	5.89%
문정동(文井洞)	10리	36호	75명	101명	176명	6.18%
가락동(可樂洞)	15리	61호	117명	252명	369명	12.95%
송파동(松坡洞)	20리	241호	436명	496명	932명	32.70%
삼전도리(三田渡里)	25리	119호	207명	245명	452명	15.86%
이동내(二洞內)	20리	71호	111명	156명	267명	9.37%
합계		655호	1,210명	1,640명	2,850명	100.00%

* 출처 : 『여지도서』 上, 경기도 광주 중대면의 자료를 정리

송파 지역의 인구 증가는 송파장의 번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은 국방상의 이유로 송파장을 개설하였던 정부측의 취지가 성공을 거두었음을 뜻한다. 1755년(영조 31) 무렵 김성응(金聖應)은 남한산성을 순시하며 송파를 들렀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이곳에는 장시가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었다.⁹⁰⁾ 송파장에서 ‘송파산대놀이’라는 큰 놀이판을 벌였던 것에서도 송파장이 얼마나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

90)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다.⁹¹⁾ 또 당시 송파장에는 여각과 객주 270여 개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⁹²⁾ 이를 통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이곳을 오가는 유동 인구도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송파장이 대장시로 꼽히게 된 것은 주변 오일장들의 장시망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도농장(1,6)–사평장(2,7)–안양장(3,8)–과천장((4,9)–송파장(5,10)으로 순환하는 장시망과 낙생장(1,6)–성내장(2,7)–경안장(3,8)–우천장(4,9)–송파장(5,10)으로 순환하는 장시망 등 인근 장시들은 모두 송파장을 접점으로 하고 있었다. 오일장이라는 것도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⁹³⁾라고 할 정도로 전업상인의 등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여전히 개별 장시는 5일에 한번만 열린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송파장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오일장이었지만 현실상에서는 상설시장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 18세기 중엽의 기록에 이미 송파장이 “명목은 비록 한 달에 여섯 차례 선다고 하지만 실체는 각 시전들의 물종을 중촌(中村)에 쌓아 두고 매일 매매”한다고 표현되었다.⁹⁴⁾

송파장이 잘 됨에 따라 이곳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의 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전도에 살던 손도강(孫道康)이라는 상인이 광주와 양주의 부민(富民)들로부터 수천만금을 출자 받아 강원도 원산에서 어물(魚物)을 배 채로 도매하

91) 송파산대놀이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타 지역 상인들의 방문을 위해 연회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낮 시간으로 앞당기고, 타 지역 사람들과 무관한 마을 행사인 ‘길놀이’를 약화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의 ‘송파 산대놀이’ 항목 참조]. 이러한 특징은 송파장에 타 지역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의 연회가 활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92) 서일수 외, 앞의 책, 2019, 19쪽

93) 『선조실록』 권212, 선조 40년(1607) 6월 24일

94)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여 도성의 어물전 상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들 수 있다.⁹⁵⁾ 송과장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던 대장시였던 만큼 이곳에서 활동하던 상인들도 다른 지역 상인들과 연계하고 원거리를 오가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1793년(정조 17) 장마로 송과 진사 건물이 무너졌을 때, 진사 건물로 쓸 수 있는 민가 50여 칸과 약간의 전토(田土)를 1,500냥에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⁹⁶⁾ 이때 수어청의 재력이 충분치 못하여 문제가 되었는데,⁹⁷⁾ 이 민가 건물을 진사로 전용하는 방안과 전토를 둔전에 소속시키는 방안은 경제적인 대책으로 여겨졌다. 이 사례는, 이 지역 부민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송과장의 번영이 정부측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송과장은 앞선 언급처럼 오일장을 너머 매일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번성하였다. 송과장은 도성에서 20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성저십리에서는 비껴나 있어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塵權)은 미치지 못했다. 즉 당시 최대 소비시장이었던 한성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은 누리면서 시전상인의 통제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곳이었던 셈이었다. 따라서 송과 상인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전국의 상품을 대량으로 매점매석하며 한성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1754년(영조 30) 평시서제조 홍상한(洪象漢)의 말에 따르면, 송과장에는 삼남지방과 동북지방의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곳의 상인들은 ‘서울[京中]의 간세(奸細)한 무리들과 체결 작당’한다고 하였다.⁹⁸⁾ 이러한 송과장은 “시전상인[市民]의 본업(本業)을 빼앗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95) 고동환, 앞의 책, 1998, 426~428쪽 참고.

96)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97)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2월 20일

98)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이렇듯 송과장이 도성 상권까지도 위협하게 되자 송과장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평시서제조였던 홍상한은 서울 시전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광주 송과장의 혁파를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1754년에는 홍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로 혁파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⁹⁹⁾

그러나 송과장은 처음부터 군사상의 중요한 목적 하에 개설된 장소였으므로, 쉽게 혁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광주유수였던 서명빈(徐命彬)은 혁파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고, 장계를 올려 송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서명빈은 송과가 국방상 요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뜻 송과진의 장시를 혁파한다면 오합(烏合)의 거민(居民)은 모두 흩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¹⁰⁰⁾ 이러한 광주유수의 입장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도 동의하였고,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재상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¹⁰¹⁾

1755년 송과장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평시서제조 홍상한, 한성판윤 이창의(李昌誼), 우참찬 조영국(趙榮國) 등은 대체로 ‘서울 시전[京市]이 이익을 잃는 것’ ‘난전(亂塵)의 무리가 이익을 독점[權利]하는 현상 심화’ ‘이미 내려진 혁파 명령을 바꾸기 어려운 점’ 등을 혁파의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송과장 혁파에 대한 반대한 광주유수와 좌의정 김상로, 행사직(行司直) 김성응(金聖應), 사직(司直) 한익모(韓翼謨), 우승지 김치인(金致仁) 등은 ‘송과는 국방상 요충지라는 점’, ‘서울이나 지방이나 모두 같은 백성이라는 점’, ‘경시(京

99)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 『영조실록』 권83, 영조 31년(1755) 1월 12일

100)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101) 송과장의 혁파를 둘러싼 이러한 영조대의 찬반 논쟁은 당대의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후대 현종 때 홍경모가 편찬한 사찬읍지인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도 정리되어 있다(오성, 김세민 역, 『(중정) 남한지』, 하남역사박물관, 2005 참조).

市)가 이익을 잃는다고 향시(鄕市)를 혁파하면 그 백성들이 생업을 잃는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¹⁰²⁾ 이때 영조는 결국 김상로의 말을 받아들여 송과장을 혁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¹⁰³⁾

1758년(영조 34)에는 송과장을 남한산성 근처로 다시 이설(移設)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¹⁰⁴⁾ 이때 광주유수 이철보(李喆輔)는 역시 송과가 군사상의 요충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전의 장시 혁파 논의 때에도 송과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장시를 옮기게 되면 송과의 백성들이 이익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겨우 이곳에 모여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때 좌의정 김상로도 송과에 "당초 장시를 설치할 때 이미 진(鎭)의 창고가 되었던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라고 하며, 송과장을 그대로 두자고 하였다. 송과장은 이후에도 존속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송과장의 장세(場稅)가 사복시 등의 세원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결국 송과장은 그 군사상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혁파·이설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장이 열릴 수 있었다. 장시를 개설하여 송과 지역에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본래의 취지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렇게 모집된 인구가 흩어지는 것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 방어 체계에서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즉 송과장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이곳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남한산성과 광주유수부 나아가 수도 외곽

102)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24일

103)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24일

104)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18일

105) 『六典條例』 권8, 兵典 司僕寺 應入 ; 『六典條例』 권4, 戶典 宣惠廳 均役廳 外 劃給代

방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송파라는 지역은 남한산성, 수어청, 광주유수부 등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적 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이었다. 이곳에 송파장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대장시가 형성되었던 것도 단순히 교통상·상업상의 이점만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장시의 시작과 번영 과정에는 군사적 목적과 기능이 관통하고 있었다.

첫째, 송파나루는 조선후기 군영 소속의 별장이 관장하는 4개 나루 중 하나에 속했다. 송파별장은 수어청에 소속되어 광진·삼전도·신천 등의 인근 나루들도 함께 관할하였다. 송파나루에는 한성 주진(主鎭)에 딸린 광주 거진(巨鎭)의 진사(鎭舍)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수어청에 소속된 군대 1초(哨)와 갑사둔, 송파둔 등으로 불리던 둔전(屯田)들도 편성해두었다. 강이 얼었을 때 수어청 군관의 지휘 아래 군대 훈련이 진행되었던 기록도 확인되며, 이곳에서 수첩군관(守堞軍官)을 뽑았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송파나루에 사는 백성들은 나루의 방수군(防守軍)으로도 징발되어 강을 건너는 행인들을 통제·관리하였다. 유사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여겨졌던 진선(津船)들도 병조와 공조의 협동 속에서 철저히 관리되었다. 이러한 송파나루는 일찍부터 ‘남한(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 ‘보장(保障)의 중지(重地)’ 등으로 여겨지며 중시되었다.

둘째, 송파나루에 설치된 진사와 함께 설치되었던 송파장은 남한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기능하였다. 남한산성은 성 안에도 여

러 개의 창고를 두었지만, 성 밖에도 갑사창·송파창·율목창 등의 창고를 두었다. 특히 갑사창과 송파창은 강변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세기 초 이후 갑사창이 없어지면서 송파창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파창은 한강 상류와 하류를 통해 전국에서 남한산성을 향해 실려 오는 군량미들과 진선 제작용 목재 및 창고 바닥용 판자목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이었다. 특히 강원도에서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목재와 그 목재상에 대해서는 송파창이 수세권을 지니기도 하였다. 높고 험준한 산성까지의 곡물 운송에 앞서 일차적으로 하역하고 보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창고로서 송파창의 역할은 컸다. 송파창의 곡물들은 봄에 인근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분급되었고 가을에 환곡을 갚을 때에는 남한산성에 납부하게 하였다. 정부로서도 환곡의 운영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송파창의 곡물이 남한산성으로 절로 운반되는 방안을 꾀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산성에도 적용되어 북한산성의 평창과 남한산성의 송파창은 두 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짝으로 거론되었다. 군수 물자가 집산되는 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물류 유통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셋째, 송파장은 군사상 요충지에 충분한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 또 그 모민(募民)들과 진군(鎭軍)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8세기 초 수어사 민진후의 제안에 따라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산성 근처에 있던 것을 송파나루쪽으로 옮겼으며, 개설과 이설 이후 송파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19세기 초에는 전국 15대 장시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송파장은 한성의 시전상인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 때문에 평시서나 한성부쪽에서는 시전상인의 보호를 위해 송파장의 혁파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유수를 비롯하여 남한산성 일대의 국방을 강조하였던 신료들은 송파장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고, 결국 혁파 명령은 철회되었다. 장시를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그 역시 송파나루쪽 인구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송파 지역 사례에서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장시가 개설·이전·성장·유지되었다. 이 사례는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군사적 요인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시와 상업의 활성화에 군사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은 비단 송파장만의 사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군문·군병들의 상업활동이나 ‘병영상인’의 사례 등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중요한 군사기관이 있는 곳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모집·정착되어야 하고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물류의 유통도 원활해야 한다. 처음부터 그런 지점에 군사적 거점도 위치하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생김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유입과 유통이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송파나루와 남한산성도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방상·상업상의 요지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관련 사례로, 북한산성 밖 연운대 일대의 상업활동 연구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추가적인 관련 사례 연구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고는 조선후기 상업과 군사시설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수어청등록』,
『수교집록』, 『전록통고』, 『속대전』, 『만기요람』, 『六典條例』,
『度支志』,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정 남한지』(오성, 김세민 역, 하남역사박물관, 2005)
『東國輿圖』 『海東地圖』 『輿地圖』 『廣州全圖』(『1872년 지방지도』)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

2. 논저

-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한국사론』
13, 1985,
<http://uci.or.kr//G901:A-0000005629@N2M>
_____,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http://uci.or.kr//G901:A-0008471509@N2M>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997,
<http://uci.or.kr//G901:A-0008475501@N2M>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の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http://uci.or.kr//G901:A-0003325123@N2M>
_____,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http://doi.org/10.31929/namdo.2019.38.213>

- 김덕진,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055577@N2M>
_____, 「19세기말~20세기초 전라도 강진 병영지역의 환(煥)
사용 실태와 메커니즘 - 박약국(朴藥局) 장부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79, 호남사학회,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026218@N2M>
- 김동철,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2011,
<http://uci.or.kr/G901:A-0001560092@N2M>
- 김미성, 「조선 후기 서울지역 고군의 분포와 집단행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_____, 『조선후기 송파나루와 송파장』, 송파문화원, 2019
- 김윤희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 김준형, 「조선후기 수첩군관(守堞軍官)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처지 - 진주의 수첩군관(守堞軍官)과
성정군(城丁軍)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
『역사교육논집』 64, 2017,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738218@N2M>
- 노영구 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http://uci.or.kr/G901:A-0009273001@N2M>
- 백승철, 「조선 후기 서울 관청과 군문의 상업 활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 백승철, 「朝鮮後期 官廳의 商業活動과 그 構造」,
『한국사연구』 106, 1999,
<http://uci.or.kr/I410-ECN-0100-2009-911-018285313@N2M>
- _____,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 商業論·商業政策』,
한국연구원, 2000,
<http://uci.or.kr/G701:B-00118426789@N2M>
- 변광석,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혜안, 2001,
<http://uci.or.kr/G701:B-00106935048@N2M>
-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345807@N2M>
- 서일수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2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 손정목, 「李朝後期 서울周邊에 形成된 衛星都市研究(上)」,
『도시문제』 1975년 11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6270893@N2M>
- 심광주, 「남한산성 출토 銘文瓦에 대한 일고찰」,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http://uci.or.kr/G901:A-0004134137@N2M>
- 조낙영, 「19세기 광주유수부의 남한산성 재정운영
-稅入항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http://uci.or.kr/G901:A-0003035681@N2M>
- 주희춘, 「병영상인 박세정의 기업경영과 상인정신」, 『다산과 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http://uci.or.kr/I410-ECN-0101-2018-151-001661917@N2M>

- 주희춘, 『병영상인, 경영을 말하다』, 남양미디어, 2017
- 차문섭,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http://uci.or.kr//G901:A-0008469966@N2M>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학교양총서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http://uci.or.kr//G901:A-0008428454@N2M>
- _____, 「朝鮮後期 松坡商의 都賈活動」, 『도시행정연구』 8,
1993,
<http://uci.or.kr//G901:A-0000972727@N2M>
- 최주희, 「18세기 중후반 훈련도감의 立役 범위 확대와 도감군의
상업활동」 『한국사학보』 71, 고려사학회, 2018,
<http://doi.org/10.21490/jskh.2018.05.71.73>

(Abstract)

The Military Impl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arket at the Song-pa(松坡) located in the Area of Han River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Dynasty

Kim, Mi-sung

This paper aims to reveal a case show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merce and military facilities by demonstrating that Song-pa area was a strategic point for the military defense of the capital city, Seoul. This point served as an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ong-pa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ilitary purpose and function of Songpa Market were penetrating the process of beginning and prospering of it.

First, the river port of Song-pa was one of ‘the four ports’ among the Han River, which were selected as the special ports controlled by each military camp since 18th century. This was also the place where Gwang-ju(廣州)’s military office(鎭舍), garrison farms(屯田), and military troops were located.

Second, the warehouse of Song-pa functioned as a key military storage for Nam-han-san-seong(南漢山城). It was the primary collection point for the rice used by military purpose, timber, or pine boards transported through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Han River before moving them to the mountain fortress. The grains of the warehouse were distributed to the civilian nearby in the spring, and they repaid them to Nam-han-san-seong in the fall.

Third, Song-pa Market was opened due to the suggestion of a military commander in the early 18th century to recruit a sufficient population to a strategic military location and to ensure a stable livelihood for them. It

was opened nearby Nam-han-san-seong but moved to Song-pa port. Song-pa Market grew rapidly, and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was counted as one of the 15 largest market place in the country. Even when it was argued that Song-pa Market should be demolished in the name of protecting Shi-jeon(市廛) merchants, it could be remained due to its military function.

As such, in the case of Songpa, the local market was opened, relocated, grown, and maintained according to military necessity. This case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study of commerci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the river port of Song-pa, the warehouse of Song-pa, the local market of Song-pa, military camps, Su-eo-cheong(守禦廳), Nam-han-san-seong(南漢山城), Gwang-ju(廣州), population recruitment(募民)